

생태농업 · 과학기술 · 산업 융합으로

영길현, '중국 밥그릇'의 깊은 의미 새롭게 쓴다



길림성 영길현은 '세계 황금 벼 벨트'로 불리는 비옥한 흑토지에서 생태농업, 과학기술 융합, 3차 산업 융합 등의 혁신적인 실천으로 '중국 밥그릇'의 의미를 새롭게 정의하고 있다.

생태재배로 품질과 효를 제고, 특색산업으로 소득 증대

8월말, 영길현 만창진 시가촌의 1,500 무 규모 '벼·계 공생기지'에서는 무계를 이기지 못하고 고개 숙인 벼이삭과 눈을 누비는 쌀전 계들이 생태농업의 살아있는 그림을 연출했다.

영길현서북벼재배전문합작사 장운양 리사장은 "계가 논에서 해충과 잡초를 제거하고 논이 계에게 성장 환경을 제공해 두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이 생태재배 방식은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줄여 쌀의 품질과 경제적 효익을 크게 향상시켰다."고 설명했다.

다. 현재 이 합작사의 제품은 전국으로 판매되며 구성원들의 연간 소득은 20% 이상 성장했다.

만창진 오가촌 하곡공벼재배합작사는 '사회화 봉사 + 고급 맞춤형' 모식을 도입했다. 토지의 통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통적인 벼 재배 모식을 습득시키고 집약 경영을 실현했다. 이로 인해 종자는 키로그램당 0.5~1원, 비료는 포대당 10~3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영길현은 현재 총규모가 18.2만무에 달하는 3개의 산업 벨트를 건설, 특색산업의 전체 산업사슬로 농민들의 소득을 크게 증가시켰다.

과학기술로 지능형 농업 실현, 흑토지 보호 효과 나타나

구월풍가족농장의 2만평방미터 규모 거대한 벼 그림이 영길현의 가을을 수놓고 있다. "과학기술농업, 브랜드

농업'이라는 글자 또한 생동감 넘치는 이 벼 그림과 조화를 이루며 현대 농업의 과학적 매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위성 원격감지 기술과 지능형 농업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부동한 색상의 벼를 센치미터 단위까지 통제해 그린 그림이다.

하곡풍합작사는 지능형 농업 구축을 위해 논에 109 개의 카메라를 설치하고 재배 전 과정을 실시간 감측하고 있다. 길림농업과학기술대학원과 협력해 식물보호학 전문기기로 구성된 기술팀을 조직하고 생분해성 방제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현재, 영길현의 농기계 종합 기계화률은 94.5%로 전국 평균보다 20% 포인트 높다. '위성·공중·지상 일체화' 농업 사물인터넷 체계(农业物联网体系)를 구축했으며 '지능경관'(智能景观) 디지털 플랫폼을 전면 보급했다. 흑토지 보호 성과도 현저하다. 전 현적으로 90.5만무의 고표준 논지

를 건설했는데 경작 토지층 두께는 평균 18.2센치미터에 달한다.

산업 융합·혁신·발전으로 향촌 진흥의 새로운 장 열어

'생산지를 관광지로, 농산물을 선물로, 논밭을 교정으로', 구월풍농장의 혁신 발전 리념은 영길현의 1차, 2차, 3차 산업 융합 전략을 잘 보여주고 있다. 우수한 벼 재배뿐만 아니라 벼·물고기, 벼·계 복합 재배를 보급하여 농업관광, 체험학습 등 대상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다.

하곡풍합작사는 2022년부터 고급 맞춤형 봉사를 시작했다. 시가지와 시스템을 기반으로 기업 및 개인을 위한 전용 재배 봉사를 제공하고 쌀 제품은 일반포장(식당·소매점), 진공포장(대형 마트·주분 고객), 선물용 제품 등으로 세분화해 부가가치를 극대화시켰다.

농업과 관광의 융합이 가속화되면서 영길현은 지역 특색을 살려 방설관광 봉사와 고급 민박 대상을 발전시켰다. 현재 153개 민박시설이 운영되고 있는데 연간 수입 1,500만 원을 돌파했다. 탁원온천관광지는 국가 4A급 관광지로 선정됐으며 18개의 성급(星级) 레저농업과 농촌관광 기업을 육성했다. 2024년 현재 향촌 관광 관광객수와 관광수입은 각각 12%, 12.5% 성장했다.

최근년간, 영길현의 토지 류전 규모는 65.35만무로 3,726개의 가족농장과 731개의 농민합작사를 육성했다. 뿐만 아니라 길림시 최초 농촌재산권거래봉사중심(农村产权交易服务中心)을 설립해 771만원의 거래 실적을 냈다. 또한 '당조직 + 당원 + 군중' 사업 모식을 혁신하여 군중들이 토지 집약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인도했다. 이외 영길현은 신형 경영주체 '완전 위탁'과 '부분 위탁'을 결합한 봉사 모식을 실행하여 농민들의 권익을 철저히 보호하고 있다.

/길림일보

길림시 조선족 과학기술일군들

서란시 평안진 학명농장 참관



9월 21일, 수확의 계절을 맞아 길림시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 회원 21명은 립광 회장의 인솔하에 서란시 평안진 금성촌에 위치한 학명농장을 방문했다. 이번 참관은 현대 농업기술과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배우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금성촌당지부 서기이며 학명농장 대표인 리학명은 2004년부터 127헥타르의 논을 통합해 벼농사를 중점으로 한 대규모 농장을 운영해왔다. 유기농 재배를 고수하며 오리를 활용한 논밭 제조 등 혁신적인 방법을 도입해왔는데 20여년간의 노력 끝에 현대화된 농장으로 성장했다.

20년 넘는 노력의 결과로 리학명은 서란시 및 길림시 로력모범, '길림성 농촌 실용형 전문가', '길림 좋은 사람' 등 다양한 영예를 받아안았으며 학명농장은 그 성과를 인정받아 시급, 성급 매체에 소개되며 명

성을 떨쳤다. 2022년에는 북방우수 벼실험기지를 설립하고 신종벼를 개발하는 데 기여했다.

이날 회원들은 학명농장의 벼 수확 현장 체험과 함께 최근 정부 지원으로 건설된 현대식 쌀가공공장, 식품가공유한회사를 돌아보았다.

리학명의 소개에 따르면 농장에서는 김치 등 식품 가공을 주력으로 하는 공장을 운영중이며 이는 금성촌 최초의 규모화, 표준화 공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는 매일 10여 톤의 신선한 쌀이 전국 전역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가고 있다.

이날 회원들은 리학명의 사업에 대한 드높은 열정과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큰 기대를 표하며 길림시조선족과학기술자협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기약했다.

/김숙자, 문창호특약기자



신선한 옥수수 시장 진출과 일자리 제공 '두마리 토끼' 다 잡아

9월, 서란시 상영진 철동촌에 위치한 원천생식품유한회사의 자동화 생산라인에서는 통통하고 탐스러운 옥수수가 껍질 벗기기, 선별, 세척, 포장 등의 변신을 마치고 출하를 기다리고 있다.

상영진은 장백산맥 장풍재령에 위치해있어 주야간 온도 차이가 크다. 따라서 생산된 옥수수는 당도가 높고 찰지며 맛과 품질이 모두 뛰어나다. 상영진은 우수한 옥수수재배기 지이다. 상영진 당위와 정부는 이자 원 우위를 산업적 리점으로 전환하기 위해 옥수수 가공 대상을 도입해 산업사슬을 연장하고 부가가치를 높였다. 또한 농민들이 시장 수요에 따라 재배구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표준화, 브랜드화 발전 경로를 구축하고 있다.

이 대상은 도합 1,000만 원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부지면적이 6,600평방미터로 옥수수 세척, 증기 조리, 진공포장 등 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다. 저온신선보존 기술을 적용해 연간 300만개, 년매출 9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제품은 북경,

상해, 절강, 강서 등지의 시장에 진출해 소비자들의 건강식품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과거에는 판로 부족과 저장의 어려움으로 농민들의 옥수수 재배 수익이 높지 않습니다."라고 회사 책임자 장해봉은 전했다.

이 대상은 '기업 + 농가' 협력 모델을 통해 80여가구의 농가와 재배 및 수매 계약을 체결하고 '보장가 + 시장가' 방식으로 옥수수를 수매해 무당 300원에서 500원의 농민 소득 증가를 보장한다. 또한 기업은 60여개 일자리를 제공해 농민들이 집안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향촌 진흥은 산업에 달려있고 산업 번영은 대상에 달려있다. 옥수수가 가공 대상의 가동으로 옥수수 '잘 키우기'에서 '잘 팔기'로의 전환을 실현했다. 상영진은 앞으로 옥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산업구조를 최적화하며 부가가치 잠재력을 끌어올려 농민들이 땅에서 실질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길림일보

길림시, 국경절 연휴 다양한 문화관광 행사 펼친다

22일, 길림시정부는 국경절과 추석을 맞아 풍성한 가을 문화관광 행사를 마련해 전국 관광객을 초대한다고 발표했다.

올가을, 길림시는 '황금빛 수확, 은빛 자작나무, 홍색 항일유적, 푸른력사문화, 초록빛 생태경관' 등 다채로운 테마를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햇쌀 시식

과 논밭 체험, 자작나무숲 산책, 항일유적지 탐방 및 '중국 10대 가을 경관'으로 선정된 교하 단풍 감상, 력사 유적 탐방 및 강, 호수 유람 등이다.

3대 테마 행사로는 '무형문화유산 속 길림'의 전통 공연, 음식 체험; '송강 달밤의 길림'의 달맞이 산행, 강 유람, 달빛 차문화 체험; '즐거운

길림'의 홍색 공연, 농산물 전시회, 쇼펡 행사 등등이다.

편의시설로 시내 72개 버스 로선을 무료 운행하고 34개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며 주요 박물관 및 문화시설을 무료 개방(야간 개장 연장)한다.

지역별 특색 프로그램으로는 영길현의 온천 휴양, 패러글라이딩(滑翔伞) 체험, 서란시의 벼 수확 체험,

특제 거류요리, 반석시의 항일유적지 관광, 자전거 대회, 교하시의 제24회 장백산단풍축제, 범선(帆船)경기, 화전시의 자작나무숲 생태관광 등이다.

길림시는 풍부한 가을관광자원을 바탕으로 하고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맞춤형 관광상품으로 관광객들을 맞을 예정이다.

/길림일보

학명식품회사, 대물림 김치 비법을 대산업으로!

—서란시 첫 대규모 김치 프로젝트 가동



최근, 서란시 평안진 금성촌에 위치한 학명식품가공유한회사 김치생산공장이 가동되어 시험생산에 들어갔다. 생산라인에서 배추는 검수, 절입, 세척, 양념 바르기, 포장 등 과정을 거쳐 맛갈스러운 김치로 탈바꿈했다. 이는 서란시 최초 대규모, 표준화, 산업화 김치가공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었음을 의미한다.

금성촌은 조선족 마을로 배추 품질이 좋으며 오랜 김치 제조 전통을 가지고 있다. 평안진당위는 이 지역의 특색을 살려 김치산업을 육성하고 '평안·금성' 브랜드를 구축했다. 또한 자금 지원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프로젝트 관리 강화, 수출입 절차 지원 등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프로젝트는 총 500만 원이 투자되었으며 1,500평방미터 규모의 부지에 표준화된 식품가공공장, 신선

채소 보관 창고, 행동창고 등을 갖추고 있다. 공장은 9월말 정식 가동되었는데 연간 400톤의 김치를 생산하여 900만 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웰빙 등 나라의 수입상들과 이미 주문계약을 체결했고 국내 대형 마트와 전자상거래 채널도 확대 중"이라고 회사 의회군 경리가 소개했다.

이 프로젝트는 '금성촌당지부 + 기업' 협력 모델을 채택해 주무형 생산을 실시하고 현지 및 인근 지역의 배추와 고추를 원료로 사용하며 40여명의 주민을 고용했다. 10가구 탈빈곤가정의 소득 증대를 이끌었다.

이 프로젝트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주민들의 김치 제조 기술을 산업화하여 서란시에서 김치의 대규모 생산, 브랜드화, 산업화 확립이라는 새로운 모델을 창출했다.

/길림일보

영길현 서양진 마안산촌, 포도산업 발전에 박차



최근 몇년간, 영길현 서양진 마안산촌은 현지 자연자원의 리점을 바탕으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현지 조건에 맞게 포도산업을 발전시켜왔다. 이를 통해 현지 주민들의 소득 증대와 치부에 기여했다. 사진은 주민들이 포도를 수확하고 있는 모습이다.

/길림일보